

## “ 무슨 권세로? (By what Authority?) ”

### ■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고 질문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권세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연초에 꿈의 발바닥을 푹 과먹었더니 한 해 동안 그 힘으로 산다는 이가 있다. 젊은 시절 운동으로 단련된 근력으로 산다는 이도 있다. 사돈의 8촌이 도와줘서 그 힘으로 산다고 하는 이도 있다. 돈의 힘, 지식의 힘, 권력, 군대의 힘으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안녕을 보장받고 지탱해 간다는 생각을 가진 이도 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서 힘의 대결(power struggle)을 통해 더 강한 힘을 가진 이가 더 작은 힘을 가진 이를 짓누르고 승리가 된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세상의 힘에 의한 심한 핍박을 받았으나 오히려 더 왕성하게 부흥했다. 초대교회회는 무슨 힘을 가졌기에 환난과 핍박도 교회를 죽이지 못했을까?

### 헤롯의 권세

초대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교에 입문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 전통을 답습하도록 했다. 그러나 집사 스데반은 산헤드린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며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로 맹공을 가했다. 그 결과 스데반은 순교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널리 퍼져나갔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까지 살해되었다.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잡아 죽였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자 그는 베드로까지 체포하고 죽이려 했다. 헤롯의 불의한 권세는 미친 사람 손에 들려진 칼과 같아 그 결과가 엄청났다.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 챔버에 넣어 살해한 아돌프 히틀러, 3,000만 명의 생명을 직·간접으로 희생시킨 구소련의 스탈린, 자기 백성 300만 명을 아사시킨 북한의 김정일 같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욕심과 목적을 위해 오용하거나 남용한 이들이다. 이들은 정의가 힘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힘이 정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 신앙의 힘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가르쳤다. 헤롯의 칼에 죽임 받기 전날 밤 그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깊은 잠이 들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 베드로는 죽고 사는 것이나 원수들이 두렵지 않았다.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쳐 깨워 쇠사슬을 풀어주고 따라오라 하며 옥문이 저절로 열려 그를 한 거리로 끌어내고 천사는 떠났다. 베드로는 비로소 주께서 하신 일인 줄 알았다고 했다. 자연세계에서 초자연적 능력을 믿는 신앙의 힘은 실로 막강하다. 같은 박해와 환란 속에서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투옥되었다가 자유인이 되었다. 베드로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12장 이후에는 베드로의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어떤 이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이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 기도의 힘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를 위해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돈 문치를 싸들고 권력자를  
 ⇒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찾아다녀야할 법한데 그런 돈도 없고 설사 있다 해도 구차하게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열렬히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다. 기도의 힘은 과연 위력적이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믿지를 못했고 로데의 보고에 미쳤다고 했다. 아니면 그의 천사가 온 것일 것이라 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체 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우리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과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갖고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제 1431호] 2014년 10월 11일 발췌-

<b>English Worship Service</b>	
[Room 802, 11:20 am]	[Preacher : Pastor Billa Pani] [Presider : Deacon Ki Chan Yoo]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Senior Deaconess Seung Kyung Baeck
Scripture Reading .....	Matthew 22: 34-40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resider
Anthem .....	Jerusalem Choir
Sermon .....	“The Purpose of our Existence” ..... Pastor Billa Pani
* Hymn .....	286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 Congregation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우리의 비전 (vi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li> <li>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li> <li>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li> </ul>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0.8em;">서울교회QR코드</p>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역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야),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영옥(인도), 서광중 이상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부형 · 오정녀(캐나다),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 명성(총회), / 아사, 비스타파, 사지, 에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란시또, 수레시, 수바식 알로롱, 비시누뵈드, 보디소프, 린트, 수권준 (방글라데시) / 감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산찬홍성임(말라위), 이재훈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제30권 제4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0년	1월26일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 예수님의 식탁 ”

### ■ 눅 5:27-35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온몸에 피부병을 가졌던 사람과 뒤이어 사람들에게 실려 온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인생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세리 레위가 등장하는데, 누가는 그에 대해 ‘세관에 앉아 있던 세리’라고만 간단히 기록합니다. 세리는 로마에 부역하면서 자신들의 사육을 챙기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하며 부유한 삶을 산다는 이유로 죄인들과 동일한 자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아마 레위도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레위의 이 같은 변화를 이끌어낸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능력을 일으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후 “네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 분이십니다.

#### 1.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먼저 일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분의 목적이 무엇이신지 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 2. 신앙은 말씀의 가르침에 따른 경건한 삶의 실천이다

예수님은 잔치라고 하는 사건, 식탁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29절) 이 잔치를 주최한 사람은 레위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을 통해서 메시아의 잔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잔치에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세상에서 저주받는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며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과 나누고 있는 이 식탁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수용하시고 회개케 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인간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성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 곧, 공동체를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근원적인 속성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지으시고, 회복하시고, 심지어 인간을 구원하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 맺는 말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건과, 구체적인 공간에 담아내야 하는 사명을 섬김과 헌신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복음의 최고의 증언은 복음이 구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신실한 삶과 행동을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곧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시므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정성국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인 도 자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오치열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이관규 장로

-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29:1-2... 인 도 자
- \*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시 4)...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 말 은 이
- 찬 송 Hymn .....10(34)...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7:1-9...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 찬 양 Anthem .....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 설 교 Sermon .....“감동주고 산다”... 김영태 목사
- \* 찬 송 Hymn .....214(349)...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오전 5시30분 .....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2)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구민영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서명철 목사

- 목 도 ..... 다 함 께
- 성 시 ..... 시 145:1-2 ..... 인 도 자
- 찬 송 ..... 302(408) ..... 다 함 께
- 기 도 ..... 정철웅 집사
- 성 경 ..... 레 18:1-5 ..... 인 도 자
- 찬 양 ..... 찬 양 대
- 설 교 ... “교회가 사는 길 4” ... 설 교 자
- \* 찬 송 ..... 313(352) ..... 다 함 께
- \* 축 도 ..... 설 교 자
- \* 주기도송 ..... 다 함 께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 최종희 권사  
 성 경 ..... 갈 4:21-5:1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두 언약” .....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서명철 목사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2)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구민영	김예지	조현정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소식

- ◆ 모 임
- 1. 권사회 월례회 / 26일(주) 오후 3시30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 알 림
-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12. 의료 상담 / 이번 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입니다. (의료상담 오전 10시-11시)  
다음 주 상담은 노선균(홍부외과), 경현구(치과)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전화 예약 010-2728-5939
- 13. 세례식 신청 마감 / 2월 세례식이 2월 16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 2월 2일(주)까지  
문답총정리는 2월 9일(주) 오후 1시에 105호실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2월 9일(주) 오후 2시 105호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례교육부 010-7743-3223으로 문의바람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15. 오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전총회장 김영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6. 김영태 목사  
 대전신대, 장신신대원, ACTS-Fuller 선교문학석사, 트리니티신대 D.Min, 한남대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으셨다.  
 필리핀 아태장신대총장, 청주 청북교회 원로목사, 92회기 총회장으로 섬기셨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51명	226명	181명	1,258명	136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19)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월19일	헌 금	123,354,310	
	특별예배비		878,000
	찬양운영비		1,840,000
	교회학교운영비		459,450
	선 교 비		1,400,000
	구 제 비		70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112,960
	통 신 비		125,400
	수도광열비		428,140
	차량유지비		1,783,980
	잡 비		100,000,000
	소모품비		161,980
	세금과공과		27,000
	환경유지비		111,700
	수선유지비		944,900
	식당운영비		1,139,150
	합 계	123,354,310	110,362,660